

## 불가리아, 남동부 유럽지역 송유관 건설계약 합의

### 1. 불가리아-그리스 연결 송유관 건설사업 추진

- 불가리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남동부 유럽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송유관(oil pipeline) 건설·운영사업 계약을 러시아-그리스 정부와 금년 2월 7일에 합의하여 다음달(3월) 초 사업계약 체결 예정
- 러시아산 원유를 흑해연안의 불가리아 부르가스(Burgas) 항구에서 에게해의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(Alexandroupolis)에 운송하는 총 연장 280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 계획
  - 참여기업: (1) 러시아-가즈프롬, 로즈네프트, TNK-BP(영국-합작기업)  
(2) 불가리아-불가르가스, 테르미날 유니베르살 부르가스  
(3) 그리스-프로미테아스 가스, 헬레니크 페트롤레움, 페트롤라
-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9천만 유로(10억 달러 상당)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, 자금조달은 민자유치로 이뤄질 계획
  - 참가국별 사업지분 배분: 러시아 51%, 불가리아-그리스 각각 24.5%
- 원유·가스의 수입의존도 심화
  - 불가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며, 원유·가스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.
  - LUKoil(원유), Gazprom(가스) 등 러시아계 기업간 관계 중요

## 2. 사업추진 배경과 전망

### □ 사업추진 배경

- 동 송유관 건설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왔으며, 2006년 9월에 개최된 3개국(불가리아-러시아-그리스) 아테네 정상회담 이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
  - 불가리아 정부가 3개의 부르가스 원유 터미널(Burgas Oil Terminal)을 분리하여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와의 동 터미널 소유권 분규 해결
-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도 러시아산 원유를 남동부 유럽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계기 마련(당사자국 관심표명)
  - 불가리아의 부르가스지역에서 마케도니아를 경유하여 아드리아해의 알바니아 블로(Vlore) 항구로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송유관(AMBO Pipeline) 프로젝트의 연계추진 고려(러시아 정부)

### □ 해결과제 및 전망

- 불가리아 야당들은 동 계약의 사업지분에 불리한 상황에 있는 점 등 사업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함.
- 사업 완공 이후 원유 수송능력은 연간 3,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추후 연간 5천만 톤으로 향상시킬 예정

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조양현  
(☎3779-6663) yhjo@koreaexim.go.kr